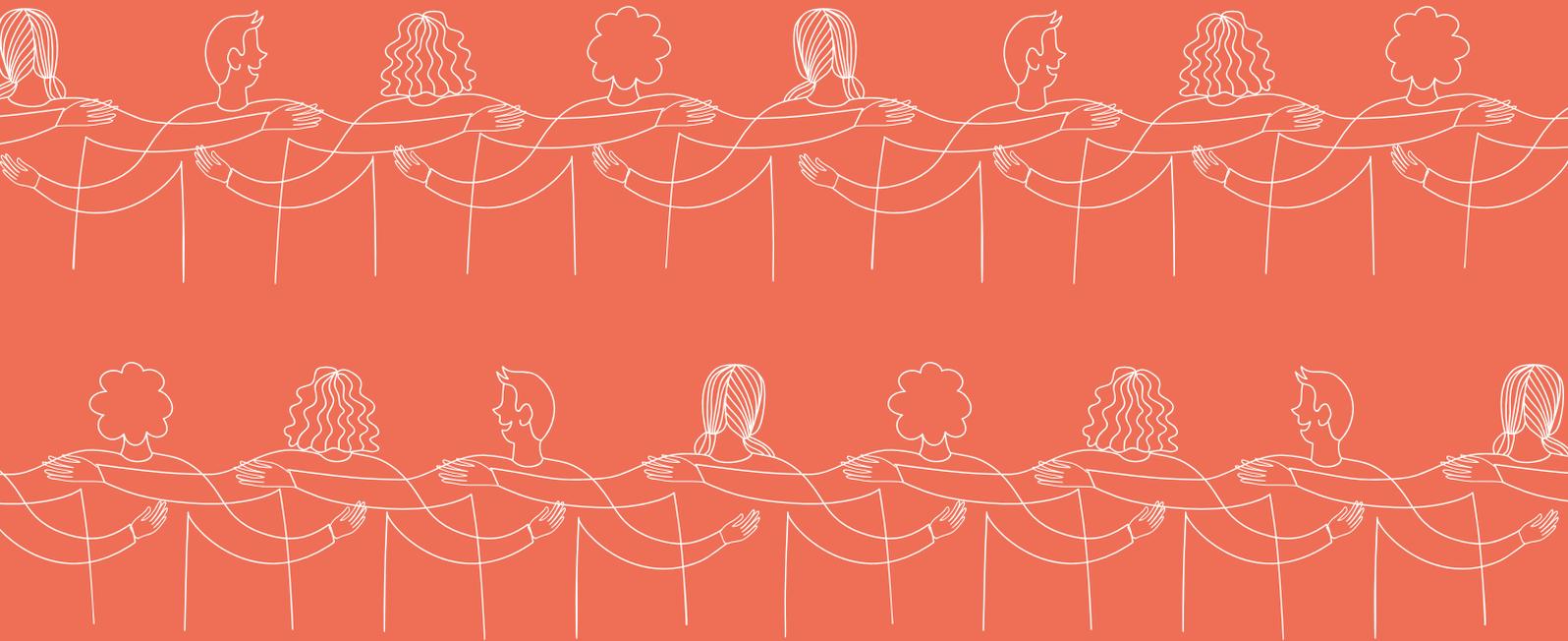


서울시 여성분야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간담회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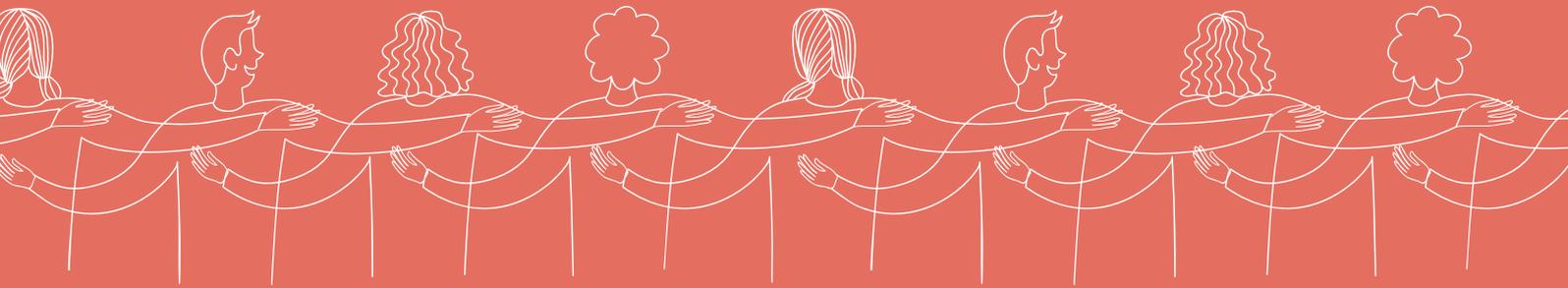


2020.12.8(화)

10시-12시

온라인진행

서울시 여성분야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간담회



프로그램

인사말

로리주희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사례발표

발제1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위탁운영을 중심으로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발제2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운영을 중심으로
김주희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발제3 서울시 복지거버넌스 여성분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정미 한국여성노조 회장

발제4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중심으로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참가 신청

bit.ly/서울여성거버넌스



신청자에 한해서 시작 30분전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zoom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seoulgenderequity@gmail.com
02)6258-1010

※ 간담회의 일정과 내용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토론 및 질의응답

< 목 차 >

□ 인사말	로리주희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센터장	1
□ 발제1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위탁운영을 중심으로” : 서울여성노동자회 위탁운영 사업 현황 및 고민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3
□ 발제2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운영을 중심으로” : 젠더거버넌스-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서울 김주희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11
□ 발제3	“서울시 복지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 서울 복지 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현황과 과제 이정미 한국여성의집 원장	19
□ 발제4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중심으로”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27

[인사말]

서울시 여성분야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간담회를 준비하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로리주희 센터장입니다.

본 센터는 2017년 10월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2018년 3월 27일 개소하여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 활동가와 성평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탐색하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모색을 기반으로 서울시 성평등 활동가와 단체들에 필요한 네트워크들의 지원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시와 협업하고 있는 단체들의 고민을 모아보려 합니다. 함께 머리 맞대고 더 나은 성평등 서울을 위한 정책제안으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제목인 ‘서울시 여성분야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간담회’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정의를 조작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거버넌스’는 ‘국가경영’, ‘공공경영’으로 번역되며, 행정학 용어 사전에서는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치시스템의 개념이라고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정의에 대한 학문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적절히 담아낼 수 있는 번역어가 없어 ‘거버넌스’라고 쓰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는 ‘협치’로 명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가 시행되었다면 최근에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¹⁾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UN Women에서도 올 해 ‘베이징+25’를 준비하면서 각국의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요구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부’, ‘시장(기업)’, ‘시민사회’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형태로 강조²⁾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국가(정부)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갖는 상호의존적인 조직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서의 네트워크가 공식화 된 것이어야 합니다. 중앙/지방 정부가 파트너십이라고 명명하는 많은 위원회는 대부분 자문기구로 정부 주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민간)의 참여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 새로운 거버넌스를 확산한다기보다 오히려 전통적인 정부 권력의 교묘한 형태로의 확산 결과를³⁾ 낳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관계⁴⁾”라 불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1) Pierr, J.(2000), *Debating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1), 「서울시정의 로컬 거버넌스 도입전략」, 정책토론회 2001. 1. 28. 서울.

3) 이명석(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36(4) PP.185-205

그동안 성평등 정책 관련 거버넌스의 현황들을 보면, 여성운동의 내용이 정부(중앙, 지방)에 제안되어 정책과 사업으로 입안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실행의 과정에서는 ‘수탁업체’ 혹은 ‘용역업체’로 위치시키는 행정(주체, 사무 등)의 한계들로 인해 여성NGO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진정한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간담회에서는 ‘거버넌스’를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수탁기관을 운영하거나 혹은 시 사업수행에 수행 주체로 참여하는 모든 형태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정에 참여하는 여성NGO의 현황과 과제를 함께 살펴보겠지만, 다음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정책에 참여하는 여성NGO의 상황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연속 간담회에서 서울시에서 성평등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영역의 운동 역량이 더 나은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해보고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 12. 8.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로리주희

4) Newman, J.(2001), Modernising Governance: New labor, Policy And Society. Sage.

< 발제1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위탁운영을 중심으로

서울여성노동자회 위탁운영 사업 현황 및 고민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서울여성노동자회 위탁운영 사업 현황 및 고민

손 영 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1. 위탁운영 사업의 배경

- 서울여성노동자회(이하 서울여노)는 1990년대 초 해고, 고용불안정, 실업상태 여성노동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요구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대정부 정책 대응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의 미싱 & 컴퓨터 기능교육사업, 미싱교육 이수자의 부업방 운영 뿐 아니라, 소규모의 기능교육사업을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96년 직업훈련직종개발 조사연구, 직업훈련기관 및 일용노조 탐방, 97년 기능훈련교실 및 무료 취업알선사업 등을 줄기차게 진행하면서, 직업훈련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서울여노에서 소규모로 진행해왔던 활동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여성들을 만나서 직업교육•훈련 기회의 확대 및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98년 11월 <구로 일하는 여성의 집>을 개관하였다. 약 15년에 걸친 여성직업교육•훈련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2013년 5월부터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2.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구로 일하는 여성의 집’ 개관 이전, 서울여노의 무료직업소개소는 여성실업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였고, 이러한 실태 파악을 기초로 정부에 직업훈련정책을 포함한 여성 실업정책을 요구할 수 있었다. 98년 IMF 당시 서울여노가 실시하던 여성실직가장 취업훈련 과정(사무회계(컴퓨터), 미용사자격증과정, 봉제기능훈련과정)을 ‘일하는 여성의 집’을 개관하며 이를 인수하여 실시하였다.
- 2001년 1월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행정부처가 이전되었고 같은 해 5월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구로인력)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5년 지방이양으로 현재는 서울시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 구로인력의 설립 목적은 21세기에 새롭게 요구되는 여성직업영역 개발 및 전문화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상담 및 알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과 사회참여확대를 도모하며, 고층처리 상담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생활교양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여성들의 삶에 변화를 갖게 하는 것이다.

- 구로인력은 2009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의거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되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쉽 및 취업 후 사후관리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 성과

- 여성의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여성직업훈련 전문기관으로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및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유망직종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직업훈련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 대상별 교육과정을 특화하여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여성, 청년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훈련은 물론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훈련, 사업주 위탁교육 등 다양한 대상에 맞는 직업훈련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기반으로 1:1 맞춤형 취업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성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경력개발 및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여성취업 및 지역사회 일자리플랫폼 핵심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일자리협력망 구축과 훈련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구인업체 발굴, 매년 100여개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의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능력중심의 여성채용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에 기여하였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캠페인, 일·가정 양립지원 우수업체 발굴, 여성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여성노동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여성실직가장, 결혼이민여성, 중·장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맞는 인재로 양성하여 취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 및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취·창업을 넘어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고 지원하여 동아리형태의 모임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여성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3.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운영

- 서울여노의 창립 정신과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수탁운영하기 시작한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이하 남부여성)은 여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취업지원·창업지원·지역복지 원스톱 전문기관으로서,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 이러한 설립목적에 걸맞게 경력단절여성, 취업취약계층, 중고령자, 청년층에게 직업훈련교육, 대상자별 특화 취업지원, 창업지원, 취업연계 후 사후관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성공패키지, 고령자인재은행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결과 「고용노동부 민간위탁고용서비스 인증기관」(2019)으로 선정되었다. 여성 초기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18개 보육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기관」, 「서울시대체인력지원센터」로 재직자 지원을 본격화하였다.

○ 성과

- 지난 7년간(2013~2019년) 주요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직종의 여성일자리를 위한 정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32,540명이 수료하였고, 여성유망직종 직업훈련의 개발과 확대를 위한 대상별, 산업별 특화과정을 운영하여 외부공모형 직업훈련 79개 과정에서 1,482명이 수료, 평균 70%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ICT분야 여성인재양성을 목표로 기존의 주력대상층인 경력단절여성 이외에도 청년여성 대상 사업을 확대하며 과정개발, 성공적 취업연계를 위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지역복지와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문화 강좌를 실시하여 매년 2,100여명이 수료하였고, 서울시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선정되어 소외계층 대상 강좌운영과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과 여성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성인문학 강좌를 새롭게 진행하였다.
- 취업지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성공패키지, 고령자인재은행 각각의 취업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경력단절여성, 청년 및 저소득층, 중고령자 등 대상자에 맞춘 취업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취업지원 사후관리사업으로 재직여성 상담코칭과 자기비전수립 워크숍, 여성중간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취업여성이 안정적으로 근무하여 경력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남부여성은 내실 있는 핵심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유망, 도전적인 여성일자리 발굴을 위한 교육, 취업 및 창업 지원, 여성의 자립기

반 조성 및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사회적 경제 영역 사업 등을 전문화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성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노동권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 특히, 새로운 일자리 분야를 개척하는데 도전과제 수립과 긍정적인 성과를 위한 실천적인 활동을 하여, 사업 운영의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개선 노력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재위탁 선정, 기관평가등급 상향,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4. 고민의 지점

1)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 공공시설에 입주된 경우 보다는 시설 임대차가 대부분이라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에 따른 불안정성
- 운영비 일부 지원으로 인해 끊임없는 재정적 부담
- 인력개발센터의 경우는 전국에 분포해 있으며, 위탁 법인만 28개가 있음.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임. 지정 운영 방식에서 위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부산의 경우 일부는 지정, 신규는 위탁). 운영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위험요소도 증가함.
- 지자체마다 지원과 요구하는 사업들도 상이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체성 고민 필요
- 새일센터 상담사 처우개선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경력단절예방사업, 경력이음사업 등 새로운 사업으로 인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관운영 및 시설기자재 지원은 없이 사업이 확장되므로 부대비용에 따른 인력센터의 자부담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서울시 생활임금도 못 받는 직원들_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의 임금이 낮듯이 여성인력개발센터 또한 같은 상황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의 현실화. 민간에 경상보조를 통해 지원하는 구조라 서울시 또한 소극적으로 대처
-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중심에서 비대면 사업으로의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시설 내 장비 미비, 참여자들의 디지털역량 격차 등)로 빠른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아직은 미흡하여 온오프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2)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위탁)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5년으로 바뀌었음에도 발전센터의 위탁은 여전히 3년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4차 디지털산업 관련 새로운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안착하기 어려움.
- 사회복지시설이나 타 직업훈련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종사자들의 낮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제도 부재, 고용 불안감 증가(서울시, 고용노동부 등 사업지원기관에 따라 인건비 규모와 사업연속성 예측하기 어려움). 서울시 여성관련시설이 경쟁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투자와 가이드가 필요.

- 위수탁 협약 체결 : 수탁재산 관리, 사업수행 등에 있어 수탁법인의 책임과 의무만을 명시. 경제적 책임(법인전입금, 보증보험료 등 자부담) 등

3) 개선 방향

- 공공행정서비스의 필수 업무를 민간에 저렴하게 책임지우는 수준을 넘어서 상생의 민간 협치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하여 위탁기관과 민간기관이 공동의 가치와 목표, 책임을 가지는 동반자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민간기관이 전문성과 자기책임성에 입각하여 자율적, 창의적으로 위탁사무를 경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야 함. 또한 평가에 있어 평가 방법이나 절차는 사전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성과와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운영성과와 협치역량이 균형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 체결이 필요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

< 발제2 >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운영을 중심으로

젠더거버넌스

: 시민과 행정의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김주희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젠더거버넌스

-시민과 행정의 함께 만드는 성평등서울-



김주희



시민이 직접 만드는

성평등 정책,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소개합니다.



젠더거버넌스

Gendergovernance

젠더거버넌스란
성인지 관점으로 행정과 시민이 함께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
시민과 행정의 함께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활동

* 성인지 관점:
어떤 정책이 특정 계층 또는 사람에게
유리/불리하거나 소외되지 않는지 살펴보는 관점

Q : 젠더거버넌스 활동은 왜 하나요?

A : 행정은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정책(사업)의 성인지성을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A : 시민은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지역의 풀뿌리활동가들과 연대할 수 있고
서울시 및 자치구 성평등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Q : 어떤 정책(사업)이 해당되나요?

A : 모든 정책(사업)은 특정 계층이나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고
기획, 진행, 평가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사업)이
젠더거버넌스 대상입니다.

2017~2019년 사업의제/정책분야, 제안사업



<http://www.facebook.com/grasswomen>
2020젠더거버넌스 리플렛

Q : 누가 참여하나요?

A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
A : 성평등, 정책, 공동체에 관심 있고
배우고 싶은 시민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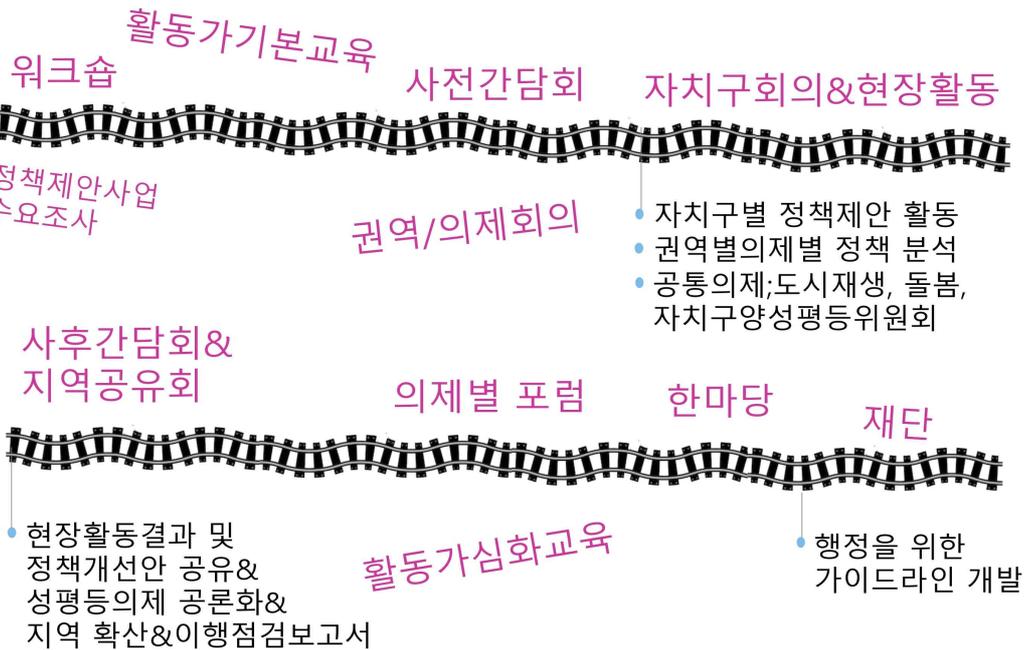
Q :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 성인지 관점, 정책 이해, 젠더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서울시 및 자치구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안하여 반영되도록 행정과 협의합니다.

함께하는 이들

강남구 너머물보라 | 강동구 신나는여성자갈자갈 | 강북구 강북여성주의모임 문 |
 강서구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참나비 | 관악구 관악여성회 |
 광진구 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 서.폐.대.연. | 구로구 더초록 |
 금천구 열린파도 | 노원구 서울여성회지부 노원여성회 |
 도봉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다시 | 동대문 도꼬마리 |
 동작구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보라돌보기 | 마포구 마포여성네트워크
 버들바람 | 서대문구 너머서 하늬바람 | 서초구 벨류가든 소담 |
 성동구 성동무지개 | 성북구 나를돌봄 서로돌봄 봄봄 |
 송파구 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 | 양천구 서울남서여성민우회 |
 영등포구 서울여성회지부 영등포여성회 | 용산구 숲티움 | 은평구 공명 |
 종로구 앤의친구들 | 중구 제제 | 중랑구 초록상상 |
 젠더거버넌스 정책위원회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행정 | 서울특별시 |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년 현재>



젠더거버넌스의 출발

- **'성평등 서울'이라는 지향과 현실의 간극**
 - ✓ 서울시는 '성평등 서울'을 지향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가시적인 변화도 많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삶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성평등 서울'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업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는 '성평등 가치'**
 - ✓ '성평등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성평등 가치가 스며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소통 및 협업이 필수적이다.
- **서울시와 시민들의 협업을 통한 '성평등 서울' 구현**
 - ✓ 풀뿌리여성조직들은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서울시는 시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젠더거버넌스 지나온 길

- 2011년~2012년 : 젠더거버넌스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이슈 제기, 정책 자문과 제언 등
- 2013년 ; 서울시 * 자치구 사업 모니터링 활동
 - 서울시 ; 120 다산콜센터, 창조적 청년기업 1000개 육성 등 7개 사업
 - 자치구 ; 8개 단체 참여
- 2014년~2016년 ; 기금 사업
 -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여성가족재단
 - 5개~10개 자치구
- 2017년 ; 서울시 협치 사업
 - 25개 자치구
 - 서울시&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서울YWCA
- 2018년~2019년 ; 주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 2020년 ; 서울시 여성단체협력팀 고유 사업

함께하는 이들

강남구 너머물보라 | 강동구 신나는여성자갈자갈 | 강북구 강북여성주의모임 문
 강서구 서울강서양천여성외전화 참나비 | 관악구 관악여성회 |
 광진구 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 서.페.대.연. | 구로구 더초록 |
 금천구 열린파도 | 노원구 서울여성회지부 노원여성회 |
 도봉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다시 | 동대문 도꼬마리 |
 동작구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보라돋보기 | 마포구 마포여성네트워크
 버들바람 | 서대문구 너머서 허늬바람 | 서초구 벨류가든 소담 |
 성동구 성동무지개 | 성북구 나뭇잎봄 서로들봄 봄봄 |
 송파구 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 | 양천구 서울남서여성민우회 |
 영등포구 서울여성회지부 영등포여성회 | 용산구 숲뒤움 | 은평구 공명 |
 종로구 앤의친구들 | 중구 제제 | 중랑구 초록상상 |
 젠더거버넌스 정책위원회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행정 | 서울특별시 |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 시민사회 풀뿌리여성활동가 발굴,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 ✓ 지역사회 확대 방안 모색
- ✓ 월1회 권역별 의제별 회의 진행
- ✓ 전반적인 사업 목적 및 방향 공유,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논의
- ✓ 실질적인 거버넌스 수행
- ✓ 지역사회 성평등의제 활동 확산

시민과 행정의 협업

1. 민관협의체 운영 (총괄거버넌스)

- 구성 : 서울시(여성단체협력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풀바람, 초록상상, 너머서
- 내용 : 공동 사업계획 수립,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 협의
 의사결정, 사업평가 등
- 횟수 : 월1회 정기 회의, 상시 회의

2. 지역별/분야별 민관협의체 운영 (자치구거버넌스)

- 구성 : 25개 자치구별/ 서울시 사업분야별
 풀뿌리여성조직 활동가, 공무원, 연구자 참여
- 내용
 - 사전 간담회 : 담당부서와 활동가 인사, 사업방향, 부서협조 논의
 - 사후 간담회 : 현장활동 공유, 정책개선안 제안 및 논의, 환류계획

젠더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

- 풀뿌리 여성활동가 발굴과 조직화
- 풀뿌리 여성활동가들의 연대와 상호 배움
- 지역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책제안' 활동
 - ➔ 풀뿌리여성활동가의 '지역'활동 강화 : 지역사회 정책에 관심
 - ➔ 지역정치 의미 변화 : 여성들의 지역 정책 참여
 - ➔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닌 참여와 제안
- 지역 시민사회의 성인지력 강화 : 성인지 감수성 높임
- 지역사회 성평등의제 활동 주도

젠더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

- 성주류화를 위한 시민과 행정의 협의 과정 구축
 - ➔ 성인지 정책에 대한 시민과 행정의 체감도 높임
 - ➔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변화
 - ➔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인지 관점 논의
: 안전, 교통(도로), 일자리, 건강, 사회적 경제, 교육, 주민자치, 인권, 복지, 보건, 청소년,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 ➔ 정책의 현장성, 성인지성 강화

젠더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

- 시민의 욕구에서 시작된 젠더거버넌스
 - ➔ 활동의 자율성, 제도화 사이의 고민
-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과 행정의 동상이몽
 - ➔ 젠더거버넌스 현장활동의 어려움
- 젠더거버넌스 활동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시각 차이
- 광역 단위 정책 제안의 어려움
- 젠더거버넌스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 예산 확보, 활동가를 위한 비전, 정책제안활동의 전문성, 확산을 위한 계획,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



“성평등 서울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있습니다”

#2020젠더거버넌스
#성평등과_정책이_함께
#시민과_행정이_함께
#지금_여기_성평등

지금,
여기,
성평등

젠더거버넌스는 지금도 진화 중입니다

< 발제3 > 서울시 복지 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 복지 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현황과 과제

이정미 (한국여성의집 원장)

서울 복지 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현황과 과제

이정미(한국여성의집)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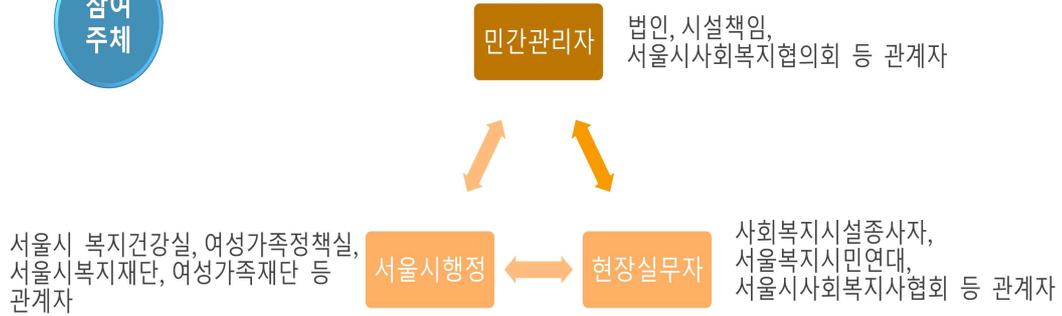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축 과정과 운영체계
 -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주요 현안 및 의제와 결과
 - 서울여성복지거버넌스 성과
 - 서울여성복지거버넌스 과제
-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축과정

목적

민관이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서울의 사회복지 환경에 대한
전향적 발전 도모

참여
주체



서울복지거버넌스 주요 현안 및 의제

민관협력파트너십 강화방안

- 갑을구조 개선 : 민관 상호평가제도 도입
- 복지제도 실행절차에 대한 개선 : 정책 입안 후, 실행 전 사회복지현장과 의 협의 및 조정과정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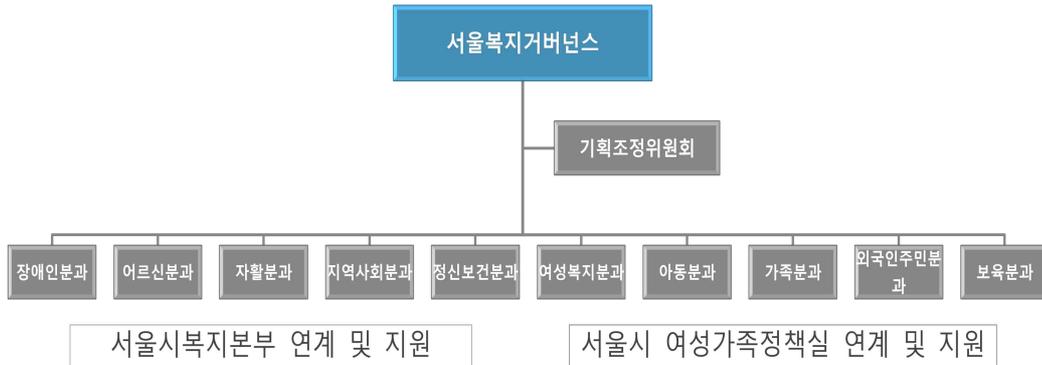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보장

-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및 경력인정 기준 평준화
- 비정규직 동일처우 원칙 적용

시설운영 개선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상설협의기구 설치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윤리경영 협력 추진
- 현장몰입형 혁신복지시설 운영 환경 조성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체계



- ▶ 기획조정위원회 : 분과활동 및 제안을 종합하고 조정, 타 위원회와의 협력
- ▶ 분 과 위 원 회 : 분야별 민·관협력의제 논의 및 실행, 네트워크
- ▶ 실 행 위 원 회 : 기획조정위원회 논의 제안, 공동실행 사업 기획

여성복지분과 구성과 특성

구분	1기(2014~2015)	2기(2016~2017)	3기(2018~2020)
위원구성	공무원(1/3), 시설대표(1/3), 종사자(1/3)	공무원(1/3), 시설대표(1/3), 종사자(1/3)	복지시설대표 20% 복지시설종사자 30% 공무원 및 공공기관 25% 정책전문가, 시민(단체)등 25%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명단구성을 분과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논의 -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현장 중심의 의제 제안 - 의제선정 논의과정에서 민·관 신뢰의 소통구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된 의제들을 실행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과에 사업비 지원 - 젠더폭력 장애여성 실태조사 연구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는 소통구조 강화 - 현장(복지시설) 중심 활동에서 시민참여·사회문제 해결형 거버넌스로 진화 - 보편적 시각에서의 의제발굴을 위한 논의(여성의 건강권, 주거권, 여성돌봄 등)

여성복지분과 주요 현안 및 의제와 결과

연도	주요현안 및 의제	결과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폭력피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폭력피해여성 긴급의료지원의 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확대 폭력피해여성 전학 및 진학 시 비밀보장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안) 수립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폭력피해여성 전학 및 진학시 비밀보장 지원방안 폭력피해여성에 관한 주거지원 및 기타 정책적 논의 폭력피해여성의 의료비 집행에 대한 논의 서울시 취약계층 여성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피해여성의 전학 및 전학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여성복지시설 간담회를 통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자리 추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노동부 관계 사업 연계방안 마련과 기존 인력개발센터와의 네트워크 활용

여성복지분과 주요 현안 및 의제와 결과

연도	주요현안 및 의제	결과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소진 예방 폭력피해여성 일자리 창출 협치정책 분석 및 평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거주아동 어린이집 우선입소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소진예방 사업 수립 폭력피해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서대문인력개발센터와 간담회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피해 장애여성 인권보호 폭력피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폭력 장애여성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진행 종사자 소진예방 사업 진행 폭력피해 종사자 교차교육 통합교육 진행

여성복지분과 주요 현안 및 의제와 결과

연도	주요현안 및 의제	결과
2018~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로 ‘여성과 노동’, ‘돌봄에 대한 재사유화’ 워크숍 진행 • 시민협치제안사업으로 <1030+ 여성건강권 접근 보장 및 향상> 제출 • 1030+ 여성건강권 접근보장 및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파일럿 연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협치제안사업으로 <1030+ 여성건강권 접근 보장 및 향상> 선정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협치제안사업으로 선정된 1030+ 여성건강권 접근보장 및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젝트가 담당부서의 부재 등으로 실행안됨 	

서울 여성복지거버넌스 성과

1. 서울시와 소통과 협치로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 마련
2.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숙원사업이 해결
3. 폭력피해여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상호작용이 시작됨
4. 2017년부터는 각 분야에서 논의되는 현안을 사업화할 수 있는 예산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으로 구체화하는데 기여함
5. 사회복지 현장의 핵심구성원이 같은 비율로 참여함으로써 핵심적 거버넌스 주체로 활동
6. 기존 사회복지 현장 이슈 중심에서 이용자와 시민 복지문제로 의제 범위가 확대, 단순 의제발굴을 넘어 정책화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추진이 활성화

서울 여성복지거버넌스 과제

1.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2. 민에서 발굴한 의제는 일정비율 이상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3. 법정기구로 기능,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하여 거버넌스에서 결정된 사항이 구속력을 갖고 실행력이 담보 되도록
4. 복지시설뿐 아니라 시민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직화된 예산구조변경과 협치에 대한 개념 설정 필요
5. 초기에 촉진자 역할을 했던 여성가족재단 관계자 역할의 부활필요

<참고문헌>

- 강상준(2013) “서울복지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되었는가?” 서울복지시민연대
- 김재민(2016) “젠더-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서울여성가족거버넌스의 한계와 가능성”, 이화젠더법학
- 김승연(2017) “기능정립·역할배분·운영체계 개편으로 서울 복지거버넌스의 실효성 강화 필요” 서울연구원
- _____ (2017) “시민소통형 서울여성복지거버넌스 분야별 의제발굴 연구 보고서” 제도와 사람연구소

< 발제 4 >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중심으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중심으로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2020 서울시 여성분야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간담회〉 자료집

성평등 2020-발간자료-04

인쇄일 2020년 12월 7일

발행일 2020년 12월 7일

발행인 노주희

발행처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기획진행 박은진, 이누리

편집 이누리

표지디자인 이민경

주소 (0337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6층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전화 02-6258-1026

홈페이지 www.seoulgenderequity.kr

인쇄처 카피웍스(02-2123-8146)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본 책자의 저작권은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 있으므로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여성사회교육원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